

2016년 6월 초청예배(광주 7부)

.....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

말씀: 요한복음 9:1-7

요절: 요한복음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생물학적으로 맹인(시각장애인)을 치료한다는 것은 약 100만개의 시신경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눈을 한번 깜박이는 데에 200여개의 근육과 골격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 생각에 꼭 막혀서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정작 눈 먼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운명적인 생각에 갇혀서 슬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맹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둡고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맹인 한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 안에 운명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운명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주목하여 쳐다보자 제자들도 그가 누구인지 스캔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아들과 달리 맹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겪는 고난에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다치고,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헬이스라엘에서도 흠수저중의 흠수저였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와 같이 태어났는지, 하나님도 무심하지는 하는 생각이 들어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2)?”**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문둥병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임하는 질병이나 고난이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20:5; 34:7).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된 중풍병자를 낫게하신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이 죄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님이신 송누가목자님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유전이 아닌 경우 엄마의 배속에서 수두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을 때 맹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경우 부모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보통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레 병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죄 때문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병이나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명의 자식과 아내를 잃고 그마저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욥의 경우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도록 하기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욥42:1-6), 또 바울의 경우는 안질로 추정되는 고질병을 앓았는데, 이는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주어진 질병이었습니다(고후 12:7). 따라서 반드시 사람들의 고난과 질병이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제자들처럼 운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다는 이유 때문에, 피부 두께가 약간 두껍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인생 다 산 사람 것처럼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내 인생은 뭔가 시작부터 잘못되었어’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렇게 꼬이는 거야’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빠 죄인가 엄마 죄인가?’ ‘외가쪽 죄 때문인가? 친가쪽 죄 때문인가?’ 맨날 그 생각에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No! 이 사람의 문제를 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닌 제 3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첫째도 운명적이고 둘째도 운명적입니다. 제자들은 겨우 그것밖에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고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서 까만 선글라스를 벗겨내시고 성령의 돋보기를 씌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슬프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둡고 슬프게,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뼈뺌하게 보게 만듭니다. 예텐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경건하게 봐야 할 것을 경박하게 보도록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부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절망적으로 보게 합니다. 얼마든지 밝은 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데 어두운 면을 봐서 비판적이 되게 합니다.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8살 때에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고 10살 때에 세 차례나 욕조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말씀은 예레미야 29:11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씨는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그녀는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이 ET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이런 얼굴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던 가운데 그녀의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선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비록 너의 외모가 이렇게 흉한 외계인처럼 되었지만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 절망과 비통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화상과의 싸움을 싸워 이겨냈습니다. 2009년에는 장애인 재활병원의 홍보대사로 일하며 뉴욕국제마라톤대회 풀코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식한 피부에 땀구멍도 없는데 다리를 질질 끌며 결승선까지 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받고 자기와 같은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아름답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보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한번 주어지는 인생,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무언가에 어떻게 맞섰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시각을 바꾸면 인생을 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은 조각가 로맹이 청년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 큰 바위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길

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향해 귀찮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댕에게는 이 화강암이 ‘인생의 앞길을 고민하는 젊은이’로 보였고 그 화강암을 깔고 닦아 바로 그 유명한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정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코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그 불행한 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실패한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상처 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빛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4a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 때는 아직 낮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동경기로 말하면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해야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괜히 앉아가지고 뒷집지고 “이 일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따지고 괜히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빛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빛, 능력의 빛을 비취주고 계십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일할 수 있습니다.

4b절을 보십시오.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인생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옵니다. 인생의 마감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본문의 맹인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빛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빛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되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바쁜 생활을 핑계하며 뒤로 숨고자 합니다. 빛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자신들의 죄악 된 행위를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

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허무와 운명,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을 뱉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 반죽을 맹인의 눈에 척척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신비스럽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전문가를 데려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 할 수 있는 끼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침과 진흙은 무엇입니까? 여름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의 침과 일대일의 진흙을 이겨서 양들의 눈에 척척 발라주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 시대에 영적으로 눈 먼 맹인과 같은 양들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맹인을 고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를 때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로서 흠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눈도 지으시고 코도 지으시고 입도 지으신 분이 왜 고장난 눈을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어떤 병든 사람도 어떤 고장 나고 망가진 사람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킨다고 협박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육신의 눈 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자신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는 복잡한 신학적 이론은 몰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는 것, 자신이 체험한 fact에 기초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끝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맹인되었던 자보다 더 불쌍한 진짜 소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6월 5일부터 8일까지 선교사 목자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맹인과 같은 저를 말씀의 진흙을 이겨 저의 눈에도 발라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야훈련을 잘 받았으니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진실된 헌신과 삶을 통해 안일하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저의 삶을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현지목자가 전하는 산소망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UBF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광부로, 도계공으로, 재봉사로, 신문

배달, 접시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제게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힘써왔던 저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선교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한사람 통해 세계선교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나라의 산소망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침과 진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게 보내주신 방기중, 강희성 형제들을 일대일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육 간에 눈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운명을 극복하고 섭리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실로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므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는 크신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